

Transport Valuechain Daily

2023. 2. 24 (금)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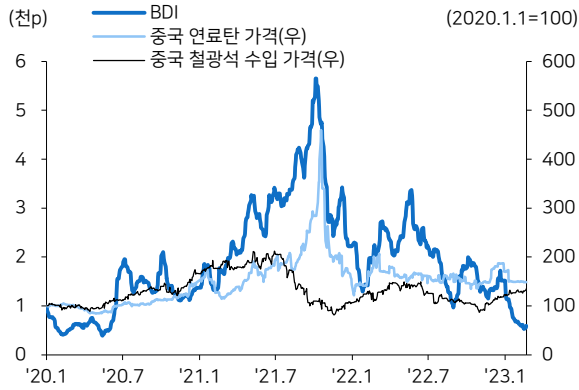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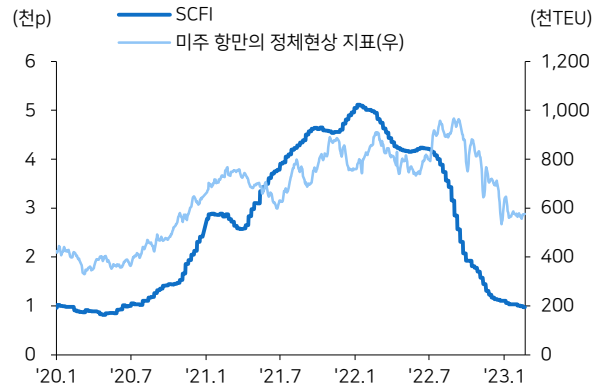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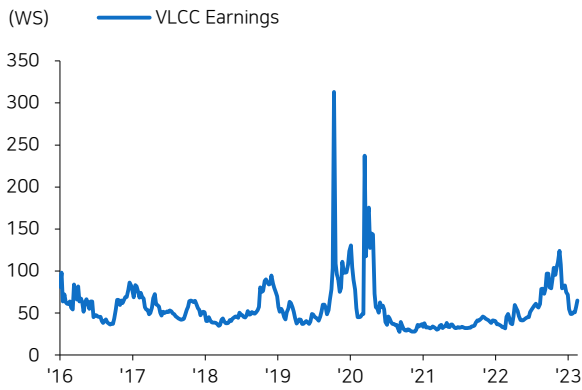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816.0p(+142.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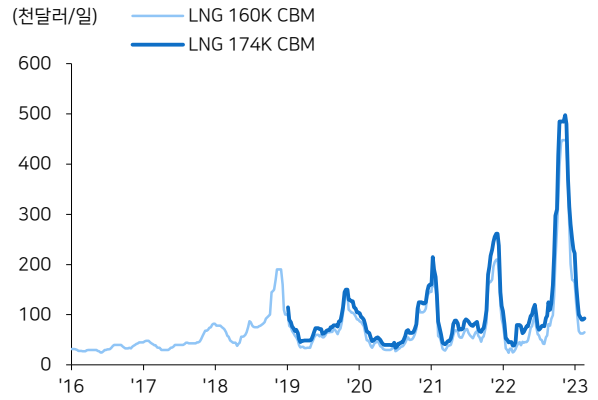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974.7p(-20.5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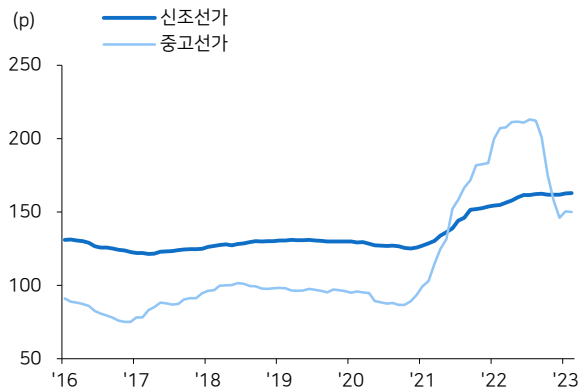
VLCC Spot Rate 65.0p(+7.5p WoW)



LNG Spot 운임 65.0천달러(+2.5천달러 WoW)
92.5천달러(+2.5천달러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3.4p(+0.2p WoW)
150.0p(+0.0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689.0달러(+3.0달러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Al Seer, VLGC 2척 추가 발주 계획

최근 한국삼호중공업에 VLGC 2척을 발주한 Al Seer가 6개월 내에 2척을 추가 발주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됨. 현재 Al Seer가 운용하는 선박 15척 중 MR탱커 6척은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하고 있다고 알려짐. (선박뉴스)

한·중, EPS VLGC 수주 경쟁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중국 Jiangnan Shipyard 등 한·중 3개 조선사가 싱가포르 Eastern Pacific Shipping(EPS)의 VLGC 2+2척을 놓고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됨. EPS가 발주하려는 VLGC 가격은 척당 약 1억달러수준이라고 알려짐. EPS는 가스선 건조 경험이 없는 중국 New Times Shipbuilding과도 접촉을 하고 있다고 알려짐. 최근 아시아 지역의 LPG 수요 증가 및 미국의 LPG 생산 증가에 따라 VLGC 발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됨. (선박뉴스)

조선업계, 후반기 인상 공포 엄습...올해 협상도 팽팽

2023년 중국발 원자재가 상승으로 철강업계가 최근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후반기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됨. 2022년 하반기 철광석 가격은 100달러 이하 수준이었는데, 23일(목) 기준 철광석 가격은 톤당 130.6달러로 연초대비 11.0% 상승했다고 알려짐.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3월 유통항 냉연도금과 유통항 열연강판 가격을 톤당 5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됨. 한편, 조선사와 철강사는 현재 상반기 협상을 진행 중임. 지난해 하반기에는 톤당 10만원 인하한 110만원에 합의한 바 있음. (데일리안)

해운수송능력 5년 내 30% 확충

정부가 2027년까지 초대형선을 도입하고 항로를 신설해 해운수송력을 1.2억톤까지 30% 늘린다고 보도됨. 2030년까지 18.4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항만 하역능력을 16억톤까지 20% 확충하고, 크루즈·스마트항만장비 등 신성장동력도 확보할 방침임. (선박뉴스)

Positivity 'sneaks back' into dry bulk as spot rates rebound and China recovery provides hope

중국 경기 회복 및 부동산 경기 회복 시그널에 지난 3일 연속 벌크시장 운임이 상승했다고 보도됨. Capesize 5TC 스팟운임은 월요일 이후 두 배 이상 상승해 목요일(23일) 4,754달러/일을 기록함. Panamax 5TC가 45%, Handysize 10TC가 10.1% 상승했다고 언급됨. 중국 제철소가 철광석 재고를 쌓고 있고, 중국항 호주산 석탄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짐. 대부분 중국항 철광석 수송으로 이뤄진 Capesize 성약 증가세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함. (Tradewinds)

Kazakh oil shipments resume after storm outage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이 카스피 파이프라인 컨소시엄(CPC)의 흑해 터미널에서 태풍 이후 부분 재개됐다고 보도됨.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량의 약 80%가 카스피 파이프라인으로 수송된다고 알려짐. 해당 파이프라인은 글로벌 원유 공급량 중 1% 수준을 담당한다고 언급됨. 2022년말 파이프라인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어 수송량은 카자흐스탄산 원유 1.1MBPD에서 1.51MBPD로 확대되었다고 언급됨. (Upstream)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